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 민주공월




2021. 여름호

# 161



9 772765 238104  
ISSN 2785-280X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아는

# 민주공원

2021년 여름호 통권 161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문정수 | 편집인 김홍기  
발행일 2021년 6월 11일 | 간행 기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 바00013  
표지 개호 신명배 | 편집장 김혜선 | 디자인 중간 051-496-8994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속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 떠내면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지난해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가 여름내 이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중 전북녹색연합에서 만든 웹 이미지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100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의 지구를, 바로 내일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행동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어느 환경 안에서 사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반 요인을 포함한 복합체계’라고 합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사는 세상, 못 생명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태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태 공동체’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도 엮어 보았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보고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체험기도 담았습니다. 6월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역사에서 일상이 된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며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의 과제는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이번 호가 우리 생태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2021년 여름호를 펴냅니다. 

## 목 차

- 04 온누리햇살 기후위기 코로나팬데믹 시대, 부산의 길을 묻는다 \_이성근
- 08 마루누리 기후재앙을 한 뼘 더 늦추는 따로 또 실천하기 \_부산기후용사대
- 14 우리 안의 혐오와 차별 구포 개시장 매쇄 사재를 통해 본 사람과 동물의 공존 \_심인섭
- 17 회원과 함께 내가 가꾸는 민주주의 \_김정아
- 20 4대항쟁 5·18민중항쟁 41주년 부산기념식·시민문화제 - 매 알고 있다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행사 - 민주주의 바람이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  
6월민주항쟁 34주년 기념 전시 - [민중미술 2021] - 지구동행기 / 신동철
- 30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억의 힘, 역사 서술 속 구술 증언의 중요성 김호민  
살은 계속되어야 한다 - 故 김형룡 18주기 추모식
- 34 민주공원 2021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타 '집구석 놀이'  
민주공원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 유반야
- 38 민주사랑방
- 40 민주알림방





영도 하리 모션시티 푸르지오 마파르 건설 현장

## 기후위기 코로나팬데믹 시대, 부산의 길을 묻는다

이성근 |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고향을 떠나 부산 정착한 지 50년에 가깝다. 지난 반세기를 부산시민으로 살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도시가 진짜 싫어졌다. 온 도시가 허구한 날 공사판이다. 타워크레인들이 도시 곳곳에 365일 서 있는 그림이 지겹다. 어떻게 빠짐한 구석 없이 매일같이 부수고 허물며 개조가 이루어지는지 질린다거나 해야 할까. 누군가는 역동성을 언급하지만 역동성치고는 지랄 같다. 그냥 일상이 되어 버렸다. 수용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 너무 예민한 것일까. 묵묵히 감내하고 사는 시민이 대단해 보일 정도다.

한때 삼포지향의 고장으로 산과 강 바다가 절묘하게 어울려 사람 살기에 그만이었던 이 도시는 현대사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고 성장개발주의에 덧입혀지면서 원형을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가변성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치부되었다. 도시는 원래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말이고 그래서 늘 변화한다는 것이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장면들은 이 도시가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 나아가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책무를 저버린 도시 같다.

부산의 고지도로부터 근현대 지도, 연도별 위성사진을 보면 이 도시의 확장성과 시가의 발달, 산지와 해안의 변화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 기대어 사는 사람의 수가 2000년대를 정점으로 하향세인데다, 고령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데 이상하게도 경작지와 삼림·녹지는 더 줄어들었다. 반면 해안은 매립으로 원래 길이보다 더 늘어났다. 다양한 터의 수요가 급증했고 그 터를 연결하는 도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각종 교량과 터널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산지를 관통하기가 예사다.

차는 비이 많은가, 부산 자동차 총 대 수가 2001년 83만 2772대였다. 20년이 경과한 현재 2020년 기준 1백 42만 9040대로 늘어났다. 일차 부산인구 2.5명 당 1대꼴이다. 이 중 80% 이상이 승용차다. 증폭한 차량은 기존의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폭을 넘어서 일상적 정체를 야기했다. 급기야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 버스체계)란 것을 도입했지만 왜 BRT가 도입된 건지에 대해 따지지 않는다. 왜단 물음이 멧쩍다. 와중에 도시의 기억이 스며든 가로수는 무단히 뽑혀져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다. 자유로운 보행은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별로 문제 제기를 하는 데가 없다. 속도와 효율에 매몰된 결과다. 치명적이다.

건축규제의 완화는 도시의 얼굴을 바꾸었다. 수변이고 산록. 평지할 것 없이 키재기 하듯 들어섰고, 이제 원도심마저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내키지 않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들먹이며 들쭉신다. 동참 안 하면 손해 보고 강제수용되는 현실을 버티어 낼 재간이 없다. 그렇게 적당해서 불로소득을 나눠 먹는 개발업자와 투기세력. 허울 좋은 도시계획이 아합한 결과다. 기존 마을과 골목이 있던 공동체는 간 곳 없다. 그렇다고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높은가 하면 그들 대부분은 또 다른 변두리로 밀려난다.

공장용지와 택지의 부족을 핑계로 낙동강 하구역이 산업단지가 된 것은 오래다. 자로 잰 듯 직선처리된 서부산권과 중부산권의 해안선과 수변은 이 도시가 얼마나 폭력적인 세월을 살아 왔는지 증명하는 현장이다. 들고남이 뛰어난 해안선은 능선부와 끄트머리에 겨우 그 흔적을 남겨 놓았다. 물론대, 태종대, 이기대 등이다. 달리 말한다면 손바닥 전체 중 손톱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그냥 두지 않으려 한다. 압남공원과 송도를 오가는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기대와 해운대 송림 사이 광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가 다시 거론되고, 황령산 꼭대기에 전망탑을 세우고 전포등을 오르내리는 케이블카 건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둘 다 시민 반대로 백지화되었음에도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업자인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인 부산블루코스트는 한 차례 백지화된 경험을 학습하여 케이블카 운행 매출액의 3%를 기부하고 출퇴근 특별 할인요금을 적용해 대중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미끼를 던져 놓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30년 운영기준 생산유발효과가 12조 3533억 원, 부가가치 효과 5조 9100억 원이다. 총사업비는 6091억 원이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연간 기부액인 30억 원은 새발에 피라고 볼 수 있다. 사업승인은 부산시가 쥐고 있고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실소하게 한다. 한마디로 도시 경영의 원칙과 철학, 공공재에 대한 미래 수요 세대인 차세대 환경적 형평성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해상케이블카 승강장 두 곳인 이기대 설치지와 해운대 송림공원은 도시공원 일몰 대상지였다.

부산시가 사들였어야 마땅함에도 여력이 부족해서 매입하지 못했다. 대신 부산시는 이기대 일원에 보존녹지를 지정해 고층 대단지아파트나 호텔 등의 위락숙박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막았다. 막았다기보다 시민·환경단체 등이 주축으로 참여한 라운드테이블 참여자들이 단호히 끊어낸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등장한 것은 2000년이였다. 성남시 학교부지 한 곳이 공원시설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지주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20년의 시한을 주어 이를 구제토

문현동 통일동산 거장자리를 덮고 들어선 경동아파트



록 한 것이지만 고 박원순 시장 체제의 서울시를 빼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 결정을 등한시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는 그 속제를 풀 절호의 기회였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전국시민행동의 공약을 수용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주축이었던 국토부나 기재부 그 어느 곳도 성실하지 않았고 공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끝까지 침묵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은 시작되었고 당시 부산은 영도구 전체 면적의 4배 이상의 일몰부지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되었다. 문제는 남아있는 절반이 국·공유지라는 것이고 정부는 10년의 유예를 결정했을 뿐이다. 또 해운대 달맞이공원 등은 2021년이 해제 만기가 되는 해다. 이 또한 속수무책이다. 달맞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반녹지로 풀린다면 거기에 고층의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또 우리는 격앙하고 말 것인가. 달맞이고개에서 미포로 가면 지난 4·7 보궐 선거를 통해 쟁점이 되었던 LCT 더살이 있다. 무려 100층대의 초호화 초고층으로 지난 2016년 정재계 인사들의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이렇다 할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어떻게 저런 괴물이 해운대 그 부지에 들어서게 되었나. 왜 우리는 저 괴물이 저토록 몸집을 키워가도록 바라보기만 했다. '부산사람들은 뭘 했노' 하는 물음 앞에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는 LCT의 실소유주로 거론되는 이영복 회장의 과거 동선이 따라 붙는다. 이영복이란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다대만덕 택지개발특혜의혹 사건이다. 1990년대 중반 백양산의 줄기 주지봉 자락 만덕동 임야와 다대포 아아산 자락 임야를 매입한 후에 로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택지로 전환한 사건이다. 두 곳 다 그린벨트였다. 이른바 부산판 수서비리라 불리는 사건이지만 수사를 받던 도중 이영복은 도망을 쳤다가 지수했고 입을 다물었다. 도피 중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영복의 침묵은 오늘의 LCT를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된 사람들의 면면은 지역 실세들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굳건하게 형성된 이들 토건 커넥션은 관료, 개발 관련 연구소, 개발업자, 지역보호,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된 '개발 연합체(developmental coalition)'들이고 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의 존재는 부산의 미래까지도 뒤흔든다. 집요했던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기막힌 변천이었다. 공식적 거론은 2006년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서 추락한 후 공식화된 노무현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 지시였다. 이후 거의 18년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와 공항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고, 주요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 시기마다 명암을 달리했다.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2018년 제7회 6·13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점화됐다. 김해신공항을 고수하던 국토부는 불변의 입장이었지만, 부산 경남의 가덕신공항 추진론자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 소음 유발, 경제성과 확장성 부족 등으로 관문 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시종일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울경 단체장 합의로 김해신공항 검증작업을 국무총리실에 맡기기로 했고, 결과는 '근본적 검토'에 이르게 된다. 2019년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는 '근본적인 검토'였다. 하지만 근본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지화로 해석되고 포장되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정치권은 가덕도를 향해 달려갔고, 지역 언론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했다. 4·7 보궐선거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순 돌릴 틈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한청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 제출되었고 발의 99일째 되던 날인, 2월 26일 국회는 재적의원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다. 코로나19로 인해 근 1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되는 때였고, 국제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문 과도한 개발이 야기한 결과로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공식화시키던 때였다. 실제 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아님에도 대륙 간 국가봉쇄가 발생했고 교역은 중단되었다. 항공산업이 타격을 입고 종사자들은 이직을 했다. 국민재난기금이 도입되었다. 백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코로나19의 변종이나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염두한다면 또 그것이 지구적 차원이라면 대한민국의 선택은 부산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역습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은 그에 역행하면서 그 이행질차 또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공유 없이 '가덕이 아니면 안된다'며 월드 엑스포에 사활을 걸고 '노무현정신'을 왜곡했다.

가덕신공항 추진론자들이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으로 신공항의 존재를 역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다. 거창하게 들먹이는 기대효과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닌 이상, 무수히 봐 왔던 거대 개발사업의 나뉘먹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엇보다 가덕의 생태환경적 진실은 거의 무시되었고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가덕의 존재는 지명만 남는다. 가덕의 생태경관과 문화유산은 금정산에 버금간다. 못밧었다면 직접 가 보라. 그래서 확인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 사업이 정말 정당한가 되물을 일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산의 길 더붙어 고민해야 한다. 📍

가덕 국수봉 등사면 국상림과 경관



# 기후재앙을 한 뼘 더 늦추는 바로 또 실천하기!

부산기후용사대



우리 직년을 돌아볼까요? 생태계 파괴로 등장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가로막고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의 태풍과 54일간의 장마는 농민들을 흉작의 두려움에 떨게 했고,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에게 재난이 되었지요. 끓어오르는 폭염에도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았고, 겨울 한파 속 컨테이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후 위기는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면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 닥친다고 해요. 현재 1.2도가 오른 상태이고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7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지구가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분명 달라져야 하겠지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와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선택과 시장경제의 총체적 변화도 요구되지요. 민주주의의 정취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들물처럼 모여 일어났듯, 이번 호에서는 <민주공원> 독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참여해 볼 수 있는 일상 속 행동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후용사대가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작지만 큰 실천들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 조금 불편해질 용기를 가져보자고요. 😎

## 1. 쓰레기를 줄여요!

### 👉 거절할 용기

음식 포장, 배달 시킬 때,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불필요한 나무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빨대가 따라오나요? 가게에 일회용품은 필요없다고 미리 말해봐요, 배달 어플에서도 “일회용품 없어도 돼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용기'낼 용기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뭔가 먹긴 좀 그렇고... 쓰레기도 만들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다회 '용기'를 꺼내 음식점을 방문해보세요, 음식량에 맞는 용기 사이즈

를 고르는 것이 중요! 냄비, 다회용 플라스틱 통, 스테인리스 통을 때에 맞춰 사용해보세요.

### 📌 다시 쓸 용기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아나바다 감성을 살릴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기보다는 빈티지 가게나 다양한 중고거래 어플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중고물품 거래로 짝짝한 소득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의 줄임말

### 📌 바꿀 용기를 가지세요!

대나무 칫솔, 실리콘 빨대, 손수건, 면생리대와 생리컵, 텀블러처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물건을 사용해보세요. 플라스틱 컵, 물티슈, 휴지, 생리대와 같은 일회용품들은 몸에 좋지 않은 화학 물질이 잔뜩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썩지 않아요. 액체 세제와 샴푸, 화장품처럼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한 물건들은 알맹이만 리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숍을 이용해보세요. 플라스틱은 줄이고~ 건강은 챙기고! 환경에 무해한 물건들로 조금씩 바꿔볼까요?

#### 🇰🇷 부산의 제로웨이스트숍 🇰🇷

🌻 한국한 세안비누 맛집 '천연제작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덕천1길 93 2층

🌻 따끈따끈 신규 매장 '심플리파이'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6번길 5 1층 심플리파이 (8월 초 오픈)

## 2. 식생활을 바꿔보자!

### 📌 고기 소비를 줄여요!

기후위기의 커다란 원인은 육식입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교통산업이 배출하는 양을 뛰어넘거든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식생활의 전환, 채식입니다! 기분이 저기 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No No! 고통받는 지구와 동물들을 위해 고기 소비를 줄여 보자고요~!



### 📌 채식을 시작하기 막막해요!

🔍 먹고 살기도 바쁜데 채식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하루를 채식하는 날로 장해보는 것 어때세요?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도 있습니다! 매주 환경도, 우리 건강도 챙기는 날을 가져봐요.

🔍 고기 먹어야 힘이 나는데 풀때기만 먹고 버틸 수 있을까?

채식만으로 충분히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식물성단백질이 동물



▲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는 2009년 유럽 의회에서 기후변화 해결책으로 '고기를 줄이면, 열도 내린다(Less meat, less heat)'라는 슬로건으로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 캠페인을 제안했다.(고기 없는 월요일 제공)

성단백질보다 인간의 몸에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큐 <더 게임 체인저스> 추천!



▲ <더 게임 체인저스>: 유명 과학자와 운동선수들이 직접 마라톤하는 채식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넷플릭스 제공)



#### 🔍 채식만으로 장보기는 처음인데!

육류와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피하고 이제 식물성 재료들로 장바구니를 채워봅시다. 😊 빠른 배송을 하는 쇼핑몰이나 마트 대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 매장과 시장을 방문한다면, 탄소발자국도 줄이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어요, 수입 과일도 그만!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팜유도 멀리해봐요~

#### 📌 기후용시대가 반한 비건식당 TOP3!

- 🥇 1위 HOME(남미 퓨전)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26번길 5 중동 1650 1층
- 🥈 2위 지상지상(중식) 부산 동래구 명륜로34번길 46 수안동 500-2
- 🥉 3위 베지나행(사찰 음식, 무오신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370번길 9-32 노블스카이 9층

### 3.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길가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주워봅시다! 집게와 봉투 하나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해요! 플로깅 또는 줍깅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

#### 📌 해변에서 줍깅!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강과 바다, 백사장에 부유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들은 파도와 모래 마찰로 인해 잘게 조각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이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탄소흡수에 큰 역할을 하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줍깅!



▲ 광안리에서 줍깅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노후형 제공)



▲ 금정구 기반 줍깅 모임 '금뿌리'에서 금정산 줍깅을 진행하고 있다.(방부리 제공)

**산에서 줍깅!**

등산하며 쓰레기를 주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우면서 걷다 보면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비닐봉지와 페트병, 리본과 휴지에 놀라게 될 거예요, 이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토양과 지하수를 석계 만듭니다. 지속가능한 대지와 하천을 위해, 줍깅!

**도심에서 줍깅!**

길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각종 쓰레기와 담배꽂초!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환경호르몬을 내뿜으며 길 위를 떠돌다가 빗물과 함께 하수도로 내려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꽂초 유기 이제 그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줍깅!



▲ 부산 서면 변화가에서 담배꽂초 줍깅을 진행한 부산기후용사대(부산기후용사대 제공)

#### 쓰레기를 챙기자!

우리는 관광지에서 놀러가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남겨집니다. 😞 산과 바다에 놀러가신다면 꼭 쓰레기를 되가져오시고,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고민과 준비를 함께 해주세요.



#### 4. 뒷걸음질 치다 지구 지키기!

의지가 불끈 솟다가도, 막상 일상의 면면들을 바꾸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곤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후위기를 핑계로 조금 더 느리고 느슨한 삶! 😊 기후재앙을 딱 한 뼘 더 늦추는 귀여운 실천들을 소개합니다!

##### 패션 테러리스트 되기!

비누로 짧게 씻고, 옷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절에 맞게 입기로 해요. 철마다 유행따라 사들이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은 지구에게는 테러와 다를 없답니다. (테러는 패션에만 허용!) 입지 않게 된 옷은 중고장터나 아름다운 가게에 내놓고, 꼭 필요한 것은 빈티지로 마련해봐요.

##### 아무지게 먹기!

맛있게 요리해서 아무지게 드세요! (채식으로! 😊)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생태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지구에서 식량손실과 음식쓰레기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3억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자천고배!

뜻밖에도 우리가 무심코 시청하는 넷플릭스나 왓챗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카톡보다는 문자로, 목적 없는 인터넷 서핑은 자제하고, 유튜브와 TV는 필요 이상으로 틀어두지 않기로 해요…!

##### 느릿느릿 살자!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비행기로 가는 것이 기차보다 두세 배는 빠르는데 굳이 기차를 타야 할까요? 네, 우리는 기차를 타야 합니다! 비행기가 내뿜는 탄소는 같은 거리와 승객의 기차를 기준으로 20배 이상입니다. 우리, 천천히 오래 살아요!

#### 5. 함께하기!

혼자 하면 미세하게 느껴졌던 행동들이 함께하면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삶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보는 건 어떨까요?

##### 비건 페스티벌

채식을 특별하게 즐기는 법이 없을까? 지역별 채식페스티벌에 참여해 다양한 채식 음식들을 맛보고 친환경 제품들도 사봐요. 다회용기와 텀블러 꼭 챙겨가기!

##### 이크에코

기후위기가 궁금하고 더 알아가고 싶으신가요? 부산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살펴보는 공부 모임, 이크에코에 참여해봐요!



▲ 기후위기 스터디 이크예코의 온라인 정기 스터디 진행 모습(이크예코 제공)



### 📌 금부리

부산 금정구를 중심으로 매월 줌깅 활동하는 모임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환경운동가가 되어보고 싶다면 금부리와 함께 쓰레기도 즐기고, 환경 세미나 참여, 생태답사 등 활동도 해봐요!

### 📌 우리 동네 기후행동 모임 만들기

위에 소개된 모임들에 참여하기에 여유가 없거나 거리가 너무 멀다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직접 모임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 몇명과 함께 동네의 공초 줌깅부터 시작해봐도 좋아요! 불필요한 삼삼을 나눠쓰거나,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우리 동네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기후행동을 함께 알아가고 지속할 친구들을 모아봐요! 📌



### 부산기후용사대는?

부산기후용사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기후위기 대응단체입니다. 기후위기 피해의 최전선에 있는 부산과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일상 속 실천들과 더불어 기후위기 공부모임, 담배공초 지도체작팀, 기후행동학교팀, 가덕도 신공항 대응팀 등 다양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후위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처럼 '부산기후용사대' 또한 여러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기후위기에 맞서고 있어요. 관심 있는 예비용사님이 계시다면 검색창에서 '부산기후용사대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bit.ly/기후용사대홈페이지](http://bit.ly/기후용사대홈페이지))

- ◀ 부산기후용사대 말대식 기후밀번들에 맞서 용사들이 재어났다.
- ◀ 2021년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러 범 내려온다!
- ◀ 2021년 국회의원당 앞에서 진행된 신공항 반대 청년기후긴급행동-부산기후용사대 공동 기자회견 현장 사진

# 구포 개시장 폐쇄 사례를 통해 본 사람과 동물의 공존

심안섭 |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2019년 7월 1일 오후,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 입구의 5톤 화물차량들이 서서히 어디론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행렬 옆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열하여 손을 흔들며 떠나는 차량을 배웅했습니다. 차량의 행렬이 도로로 합류해서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필자의 눈가에 이슬이 축축하게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 차량 안에는 일명 구포 개시장에서 도살되어 '지육' 또는 '개소주' 등으로 유통되어 절편한 개들 수 십여 마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 개들은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구조되어 경주에 있는 보호소에 이동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유년 시절, 필자의 이웃집은 나름 유명한 보신탕집이었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위해 그 보신탕집을 지나칠 때면 '빨간 고무 다라이'에 담겨진 하얀 개 사체와 붉은 핏물을 예사스럽게 지나치곤 했습니다. 당시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옆에 개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눈을 감고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날 하룻길에 우연히 도축장 앞에 발걸음이 멈추었는데 하필 그 도축장 주인이 작은 하얀 개를 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용인에 있는 식용견 농장 및 도살장에서 5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해당 농장은 불법 운영으로 고발돼 용인시에 의해 폐쇄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농장에 남아 있던 50여 마리의 개들은 오갈 데 없이 민박사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용인시동물보호협회, koreank9Rescue와 함께 남아 있던 50여 마리의 개를 모두 구조하였으며 구조한 개들은 입양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현지 보호소 등 미동될 예정이다.



장에서 꺼내 바닥에 눌러 목을 칼로 베어 죽이는 모습과 그 작은 개의 목에서부터 시작해 바닥에 번진 시뻘건 피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울며 집으로 도망치듯 달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이라면 그 주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법으로 체포되고도 남았겠지요, 그 당시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현재의 식용목적의 개농장들은 좁은 철장(일명 뜰장)에 개를 가두어 두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끓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밥그릇에 부어줍니다. 이는 사료관리법 위반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밥그릇엔 온갖 벌레가 들끓고 날이 추워지면 그대로 공공 얼어버립니다. 아프다고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춥다고 따뜻하게 해 주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을 뿐입니다. 그깟 쓰레기 음식물 주기도 번거롭고 귀찮다고 한 달여간 밥을 안 줘서 수십 마리의 개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불과 4년 전입니다.

개뿐만 아니라 식용의 목적으로 길러지는 동물들의 사육환경은 참 잔인합니다. 산업화가 되어 버려 동물의 복지보다는 사람의 이익이 최대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결과입니다. 닭은 A4 용지의 2/3 정도의 공간에서 평생 날갯짓 한 번 하지 못하고 일만 날다 죽어갑니다.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되면 털을 쳐다 뽑아 버립니다. 닭은 본능에 따라 털을 나게 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알을 한두 번 더 생산합니다. 그게 이송에서의 마지막입니다. 돼지는 좁디 좁은 '스톨'이라는 공간에서 몸을 반대로 누지도 못한 채 먹고 싸고 젖만 물리며 새끼 돼지들을 키웁니다. 송아지 고기를 얻기 위해 어미와 강제로 이별시키고 모유가 아닌 철분이 없는 인공 분유를 먹입니다. 철분이 있으면 도축된 고기가 붉은 빛을 내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들은 체내 철분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의 오줌을 핥아먹기도 합니다. 우유를 얻기 위해 강제로 인공 수정을 시키고 모성애라는 본능이 있는 어미를 새끼와 완전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 다른 생명 종을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일.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2000년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명철과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 프로그래밍 결과 그들이 사람을 죽이기 전 동물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력 행위를 일삼았던 사실이 알려졌고, 1994년 지존과 사건에서도 지존과 일당 중 한 명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 하나 죽인 것은 개 한 마리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 직후 개를 잡아먹은 사실에 빗대어 살인 행위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는 2016년 동물학대를 반사회적범죄로 간주하고 관련 데이터를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FBI가 동물학대 사건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계화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미국에서 강력사건 등으로 수감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과거에 동물을 대상으로 폭력을 써본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동물에 대한 폭력이 동물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옮겨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만 국한되는 폭력 또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 2016년, 공중파 TV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 '강아지공장' 사건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개들에게 강제 수정을 시키는가 하면 수의사 면허도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등 개농장 주인의 동물에 대한 태도에 국민이 분개하여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캠페인에 평소 동물관련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온라인 서명물의 30배를 가뿐히 넘겼고 거리 서명지가 모자라 인근에서 급히 용지를 수급하는 혼선도 빚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요구에 굽뜨던 정치권이 움직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즈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에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는 그간 인권, 환경, 경제 등으로 대변되던 시민운동에 동물(권)을 포함해 동물을 위한 운동도 현 시대의 시민사회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꽤나 진보적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시민연대 운영위원이었던 필자는 시민연대와 함께 '오시리아 돌고래쇼장 건립 반대 운동'을 통해 야생의 돌고래를 포획해서



민후공원에 살고 있는 꼬리만숯새이 치즈데이 노랑미. 왼쪽 귀 위쪽이 잘린 것은 중성화수술 한 길고양이임을 표시한다. TNR(Trap-Neuter-Return)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이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다.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관람거리로 전락시켜 돈을 버는 행위가 비윤리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의제를 만들고 결국 업체가 돌고래쇼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도록 만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야생생물법의 개정으로 돌고래 수입이 어려워진 점도 있지만) 이처럼 시민운동 차원에서 동물권을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해져서 동물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것을 불편하게 바라본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민의식에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행정가의 결정, 공무원들의 헌신 그리고, 상인들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의 조화가 수십 년간 꼼꼼도 하지 않았던 철용성 갑았던 구포 개시장을 폐쇄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감히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지면으로 세상 도처에서 사람에 의해 희생되고 이용되는 동물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구포 개시장의 폐쇄를 시작으로 세상은 조금 더 변했고, 조금 더 동물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안고 저는 다시 대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소년이 부산 구포를 찍고 대구 칠성 개시장을 폐쇄하기 위해 시민들께 몸을 맡깁니다. 📌

## 내가 가꾸는 민주주의

김정아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후원회원

4월은 푸르른 하늘 아래 뛰어놀기 딱 좋은 달이지요. 아이들이 많은 저는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과 많이 뛰어놀며 몸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였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이런 저희의 자유를 코로나19라고 하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많이 빼앗겼었죠.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고, 식물의 성장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잘 만나지 못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죠. 이런 시간이 1년 가까이 되다보니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해결하기 힘든 것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서라도 조금씩 야외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월 5일은 식목일이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자원이 결국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나 꽃 한 송이라도 심어서 도움이 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날인데요, 부끄럽게도 아이들과 매년 식목일에 제대로 식물을 심어보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해 4월은 달랐습니다. 아이들과 야외로 나오는 것은 물론 식물과도 직접적으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내가 가꾸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공원에서 진행된 반려식물 확산 만들기 행사를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총출동한 이번 행사에는 배번 일 때문에 참가하기 힘들었던 아빠도 함께 참여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오랜만의 외출에 설렐었어요.

행사는 총 2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민주공원을 둘러보며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서 설명해주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 주셨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민주공원의 설립부터,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항쟁 이야기며,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투쟁하셨던 분들을 기리는 공간이나 작품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 행사는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가 가꾸는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공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민주주의 햇불 조형물을 보면서 원형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민주공원 체험학습장이 나온답니다. 소모임으로 진행던 행사는 가족별로 미리 준비된 흙이 있는 공간에 둘러앉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흙을 만질 기회를 많이 가져보지 못한 막둥이가 제일 즐거워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촉감을 느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처음에 한 가족당 하나의 모종을 받았답니다. 둘째가 재빠르게





모종을 받으러 갔다와서 난리가 났습니  
다. 막둥이는 자기가 받아올건데 형이 받  
아왔다고 울며 좌절하고 있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서 둘째가 들고온 모종을 다  
시 반납하고 새로운 모종을 막둥이 손에  
들려 받아왔습니다^^; 진행해주시는 선생  
님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식물  
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4월에 심은 이 꽃의 이름은 '핑크 키세스'  
라고 하는 식물이었는데요, 꽃모양이 마  
치 작은 카네이션과 같았답니다. 선생님  
의 꽃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역시나 카네  
이션을 접붙여 만든 식물이라고 하시더라  
구요^^ 식물을 고르는 센스도 참 멋진  
분이세요^^



이제 차근차근 안내에 따라 하나의 식물  
을 심어봅니다. 먼저 식물을 옮겨심을 화  
분에 바닥에 망을 깔아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한 가족당 필요한 만큼의 망을 잘  
라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사이즈에 맞춰  
서 자르며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큰 모래인 마사를 넣을 차례  
인데요, 모래와 흙이 섞일 수도 있어서인  
지, 선생님께서 직접 조별로 한 팀 한 팀  
씩 돌아다니면서 마사를 나눠서 넣어주셨  
답니다. 세 번째 작업은 모종 통에 담긴 식  
물을 뽑아 화분에 옮겨심고 3분의 2 정도  
흙을 채워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  
로 흙을 좀 더 단단하게 채워넣으면 끝! 선  
생님의 설명대로 차근차근히 따라 핑크


키세스를 심다 보니 어느새 식물 옮겨심기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막둥이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나눠준 종이컵으로 모래성을 만드느라 바빴답니다~

완성된 식물의 이름을 쓰고 물을 주는 주기를 써서 화분에 끼워넣었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식물 이름을 만  
들어 이름표에 적어 화분에 붙여주었습니다.

2번째 식물을 심는 것은 처음 식물을 심어봐서 자신감이 조금 생겼답니다. 두 번째 식물은 '아이비'였는데  
요, 아이비는 핑크 키세스를 심을 때처럼 화분에 심어도 되고 물에 바로 키워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야기 끝에 화분에 심기로 하고 처음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화분에 심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위기에 봉착했지요, 옮겨심는 화분이 작아서 도저히 흙을 채워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

돈요, 선생님께 SOC를 부르자 당장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해결책으로 뿌리를 잘라서 넣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이비 옮겨심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에 심는 텃들은 '개구리알'이라고 불리는 것을 채워넣으며 물에 아이비 뿌리를 고정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개구리알이 줄어들면 물을 보충해 넣는 식으로 물 조절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물에 아이비를 심지는 않았지만 관상용으로 개구리 알만 받아와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막둥이는 개구리알을 한 킷가득 받아와서는 '개구리가 왜 이렇게 안 깨어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개구리알을 바닥에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나 다시 개구리알을 보충해 오기도 하며 좌충우돌 즐거운 식물체험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체험은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식물을 심어보며 '함께'의 의미를 더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회원과 함께하는 소식지

소식지 '민주공원'의 가장 소중한 독자는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회원과 함께> 꼭지는 말 그대로 '회원의,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지면입니다. 회원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도 하고, 회원님께서 직접 써주신 회원 참여 프로그램 후기를 소식지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과 함께> 꼭지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꾸러나가고자 합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홍보 담당 ☎ 051) 790-7405
- 회원사업 담당 ☎ 051) 790-7477
- 온라인 신청 [bit.ly/회원과함께신청](https://bit.ly/회원과함께신청) 또는 QR코드 촬영





### 5·18민중항쟁 41주년 부산기념식·시민문화제

# 마! 알고 있다!

5·18민중항쟁 41주년을 맞아 5월 18일(화) 저녁 7시부터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5·18민중항쟁 41주년 부산기념식·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 41주년 공식 슬로건으로 5·18민중항쟁을 역사 속에 묻어두지 않고 지금의 세대로 오월정신을 물려와 그 가치를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부산기념식과 시민문화제는 '마! 알고 있다'라는 주제로 5·18민중항쟁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동시에 5·18민중항쟁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책임을 부각하고,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되짚으며 5·18민중항쟁의 의미를 현재화하고자 했다.

동시에 1980년 5월의 진실을 알 수 있는 5·18 관련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전시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와 당시 현장을 판화로 제작

5·18 광주  
항쟁과 미국



5·18 광주  
항쟁과 미국



5·18 광주  
항쟁과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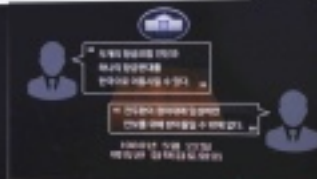
어는 공연 킬러용키즈 <전쟁과 평화>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했다. ▼▼  
1980년 5월 당시 미국 상황을 알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준비했다. ▼

## 5·18 당시 미 백악관 전두환 지원 결정

제본기 파일 1식 플랫폼 제공



공주에서 보았던 정보가 알려진 이후에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있던 대통령이 말했다. 이 정보는 일종의 미국의 이익을 위한 논의로 전향되고 신군부가 앞으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제본기 파일에 여러 세고의 최근의 공정한 시 플랫폼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지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한 상황과 전두환 신군부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한반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 흥성담 화백의 오월 평화 연작 중 35점을 더불어 펼친 <더불어 흥성담 오월 평화 마당>을 3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민주공원 집은펼쳐보임방에서 열었다. 전시는 당시 시민들이 쓴 성명서, 일기 등 개인적인 기록이 어떻게 공동의 기억으로 구조화되는지 보여주었다. 특히 5·18 당시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에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비밀 전문 자료와 국방부, CIA의 보고문도 볼 수 있었다. 흥성담 화백의 판화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혹한 진실을 담고 있는 동시에 대중 세상의 꿈을 품고 공동체를 지켜간 광주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보다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에서 연 <5·18민중항쟁 41주년 부산기념식·시민문화제>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에 더욱 힘을 쏟았다. 행사장 주위를 통제하고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등을 시행했으며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서면을 오가는 시민들이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채로운 공연과 발언 등으로 꾸러진 5월 18일 저녁 부산의 모습을 지면에 펼쳐낸다. 📌



연출자가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제창하기도 했다.



무산 예술가들의 미포먼스 지켜보던 시민들도  
질란에 젖듯 물감이 묻은 공을 던지며 함께했다.

# 2021 5.18

5·18민중항쟁 41주년 부산기념식·시민문화제

# 마! 알고 있다!



◀ 부산만예총 청년예술위원회가 함께 꾸민 공연이 이어졌다.  
▼ 산천문화예술행동 홍미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행사

## 민주주의 바람이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

1987년 6월, 뜨거웠던 여름은 어느덧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군부 독재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주의 정권으로 바뀌었고, 밥상머리에서조차 하지 못하던 정치 이야기를 시끄러운 식당에서 친구들과 한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노동자들도 제 목소리를 크게 외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바람이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 되었다.

'우리가 6월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6월민주항쟁 34주년 기념 영상공모전을 개최한 것은 1987년 6월과 민주주의가 일상이 된 지금의 조용을 찾고자 함이었다.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부림사건' 조작으로 부산의 청년들을 잡아들여 모질게 고문했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민주'를 노래하며 민주주의와 함께 꿈꿨던 평화통일은 발걸음은 아직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공돌이', '공순이'들이 거리로 나와 외쳤던 노동3권 보장, 근로조건 개선은 대담 없는 메아리처럼 울려 수많은 노동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위험에 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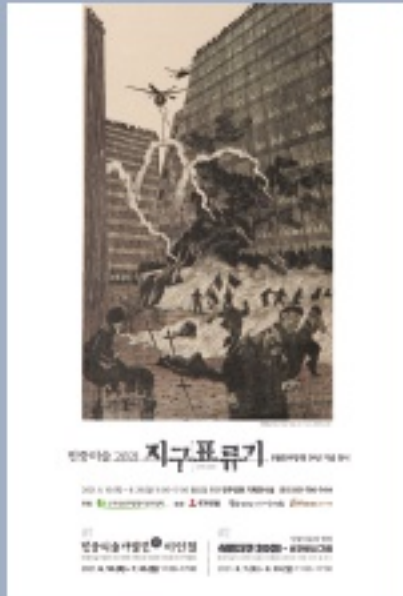
6월민주항쟁 34주년, '민주주의 바람이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되뇌며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과거에서 미래를 찾고자 한다.



##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식·시민영상제

6월 10일(목) 오후 7시부터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식·시민영상제>를 민주공원 앞마당에서 연다. 6월민주항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기념식과 함께 영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영상 작품을 함께 보는 시민영상제를 펼친다.

1987년 6월민주항쟁 당시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타올랐던 장소들의 '지금'을 찾아나서고, 6월민주항쟁 열사들의 유가족을 찾아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을 되짚어본다. 지금도 사라지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첫머리를 곱씹어본다. 영상은 기념식 현장에서 상영하며, 기념식 이후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youtube.com/민주공원)에서 볼 수 있다.



## 민중미술 2021 - 지구표류기


6월민주항쟁 34년을 기념하는 전시 <민중미술 2021 - 지구표류기>는 6월 10일(목)부터 8월 29일(일)까지 민주공원 작은미술관(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첫 번째는 민중미술가열전 여섯 번째 기획으로 마련된 이인철 작가 특별전 <민중미술가열전 VI 이인철>이다. 6월 10일(목)부터 7시 25일(일)까지 연다. 민주공원에 소장하고 있는 이인철 작가의 작품 다수를 선보인다.

두 번째는 <민중미술의 현장 식민지구 2021 - #코로나그림>으로 8월 7일(토)부터 8월 29일(일)까지 펼친다. 환경미술의 새로운 담론과 흐름을 표현하는 3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6월민주항쟁 34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학술 심포지엄도 <복합위기 시대, 한국사회의 전망>을 주제로 8월 27일(금)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 예정이다. 

◀ 2020년 6월민주항쟁 33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6월민주항쟁34주년 기념 전시

## [민중미술 2021 - 지구표류기] &lt;민중미술가열전 VI 이인철&gt;

작전명령: 종교군산복합기계를 타격하랏!

신용철 | 민주공원 학예실장



“ 210514\_시골큐레이터 설두쫓/빛무리를  
 뚫고 울만에 출동했어. (민중미술 2021) 올해  
 걸개달은 지구표류기야. 첫번째 섹션 [민중미  
 술가열전 VI]은 이인철 작가야. 부산 초탕이 낳  
 은 야망 아티스트야. 80년대 관화마당을 스스로  
 일구었어. 일찌감치 디지털 드로잉의 바다를 또  
 스스로 자막질했어. 이인철은 민중미술의 스모  
 킹 (조 프레이저)야. 그에게 걸리는 국가주의,  
 제국주의, 군국주의는 개박살 있어. 스모킹리에  
 게는 성적이 없어. 스모킹리는 비평을 싫어해.  
 제 전시를 앞두고 여러 비평가를 전시금동무로  
 얘기했으나 맘에 들어 하지 않았어. 끝내 오랜  
 술동무 그림동무 김진하(나무화판 대표), 이종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금동무 삼기로 했어.  
 근데 김진하, 이종률 두 동무는 또 따로따로 민  
 중예술 마당에서 한 거리 드신 분들이야. 야망한  
 묶음이어서 설레고 두렵고 쓰러. 좀체 풀지 않는  
 시골큐레이터를 설두쫓 하게 만든 세 야망가르  
 디안 만나러 간데이~~~^^ ”

(글쓴이의 페이스북 2021년 5월 타임라인 참조)

이인철\_보이지 않는 손\_30x43cm\_리플본민화\_1990



이인철\_삼대식사\_80×53cm\_세리그래피\_1991

나는 민주공원 큐레이터다. 나는 향도 부산의 시골 큐레이터다. 나는 서울로 올라가고 부산으로 내려가며, 부산으로 올라가고 통영으로 내려간다고 말하는 말버릇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은 동네 큐레이터다. 찔름밭이 한국미술사와 전면전을 펼치고 싶으나, 짧은 팔다리 작은 머리를 갖춘 타고난 인파이터로서 민중미술 한 농만 조지기로 마음먹은 민중미술 전문 큐레이터다. 그리하여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 주례 서고 작가들 뒤로 사라짐으로 살아가는 큐레이터다.

민주공원 수창고에는 700여 점의 민중미술 작품이 살고 있다. 나는 그림목숨들과 2011년부터 10년째 함께 살고 있다. 하루 내도록 그림목숨들 고시랑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쟁쟁거린다. 때로는 그림목숨에 숨을 불어넣은 사람목숨을 만날 때도 있다. 내 큐레이터 목숨은 이들 목숨들과 숨길로 이어져 있다.

그림목숨 700여 점 가운데 작가 이인철의 판화 작품이 57점이다. 그림목숨 가운데 이인철의 작품이 으뜸 많다. 부산에서 지라나 경기권에서 놀았던 작가의 작품이 전주 온다라미술관을 거쳐 민주공원에 소장되기까지의 본풀이를 여기 낱알이 밝히기엔 글마당이 작다. 나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이인철의 작품을 소장작품전 할 때마다 끄집어내었고, 부산민예총 〈함께가는 예술인〉 표지에 네 번(73호, 99호, 108호, 116호)을 실었다. 사람목숨 이인철과 그림목숨들을 마구마구 부러 쓴 큐레이터다.

때마다 이인철의 그림목숨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여다 들었지만 [죽음, 죽음, 죽음\_44×74cm\_목판화\_1991]은 늘 궁금했다. 일인칭 슈팅 게임 같은 스크린이다. 스크린 상공 위를 선회해서 달려드는 헬기 기관총이 난사하는 것은 십자가들이다. 십자가의 사적 아래 스러지는 거리의 노동자들, 이 광경을 고층빌딩 창에서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무직들, 이인철의 스크린에서 1980년 5월 헬기기총소사와 1987년 노동자대투쟁 거리가 하나 되어 2021년 미안마 거리를 불러낸다. 헬기가 쏘아대는 십자가는 이인철 그림발을 이루는 주요 상징의 그물로 이어져 있다. 군국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한몸을 이룬 군산복합기계와 이를 지행하는 배타적 종교민족주의는 작가 이인철의 주요 타격대상이다. 1991년 이인철의 판화는 다른 민중미술 판화가들과 아주 다른 결을 보여준다. 판화가 이인철이 디지털 매체인 컴퓨터그래픽으로 갈아타는 징검다리에 이




이인철 교회와 있는 풍경\_24×34cm\_리놀륨판화\_1988



이인철 죽음, 죽음, 죽음\_44×74cm\_목판화\_1991



이인철\_피제번트 입은 십자가\_디지털 프린팅\_2003

작품이 놓여 있다. 사람목숨 이인철은 제 끌리는 대로 그림목숨을 만들어 제 스스로 갈래가 된 작가이다. 이인철 전에 이인철 없고 이인철 후에 이인철은 없을 것이다. 

※ 전무후무 인파이터 스모킹리 이인철의 작품 50여 점관화와 디지털 프린팅은 [민중미술 2021 - 지구표류기] 섹션 ① (민중미술가협회 VI 이인철) (2021.6.10. ~ 7.25. 민주공원 잠은림초보임방)에서 만날 수 있다.



<민중미술가협회 VI 이인철> 포스터

## 기억의 힘: 역사 서술 속 구술 증언의 중요성

김호민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원

인간의 뇌는 얼마나 많은 기억을 저장할 수 있을까? 미국의 연구자에 따르면 1페타바이트, 즉 1,024테라바이트라고 한다. 책으로 환산하면 47억 권에 이른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장서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1,289만 권이니 인간의 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가 들어 있다 평해도 될 법하다.

인간의 두뇌가 가진 무한한 기억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억 자체는 꽤 오랫동안 역사학에서 그다지 신뢰받지 못했다. '기억은 거짓말한다.' 필자가 들은 역사학의 격언(?) 중 하나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심하면 자화자찬, 덜하면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억에 대한 불신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또한 역사학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기억을 믿기보다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고 교차 검증도 가능한 문헌을 연구에 주로 활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헌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심할 경우에는 문헌 자체가 소위 독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쉬운 예로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를 보자. 일본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사 관련 문헌이 극히 부족한 한국에서도 『일본서기』는 매우 유용한 문헌이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복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칫 잘못 읽으면 일본인에게는 국수주의를, 한국인에게는 식민주의라는 독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현대사는 어떻게? 불행히도 이쪽도 만만치 않다. 한국 현대사를 휘젓고 다닌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의에 대한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고 그 결과 수많은 거짓 진실이 문서의 형태로 사회에 유포되었다. 당장 독재정권 치하에서 양산된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자. 엄숙한 법의 언어로 쓰인 문서 뒤에 숨겨진 고문의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다. 당대의 신문기사와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조작과 통제하에 작성된 보도만 보면 독재정권은 평범한 문민 정권으로, 민주화운동가는 사회과피범처럼 보인다. 불행한 점은 독재정권의 실상이 폭로되고 사법처리까지 끝난 오늘날도 과거의 생산된 거짓 문헌들이 진실처럼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재정권의 역사조작이 만연했던 한국현대사 속에서 구술 증언 수집은 오랫동안 진실을 찾는 돌파구가 되어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88년 출범한 한국현대사학회연구소였다. 리명희, 송기숙 등이 주도해서 창립된 한국현대사학회연구소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증언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을 출판하였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구술 증언의 수집과 활용의 방법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현대사와 민주화운동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단 한 사람의 작은 기억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많다.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나아가 가해자들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나치의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해명할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수십 년에 걸친 침묵의 돌파구를 만든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한국전쟁기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경우에도 목격

자들의 증언이 학살의 규모와 장소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대전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경우 교도소 관계자가 갖고 있던 기억이 희생자의 규모와 유형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사 연구 역시 수많은 이들의 구술증언에 빚을 지고 있다.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증언 수집의 중요한 시발점은 1989년 출판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이다. 해당 자료집에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부산 지역 증언자 17인과 마산 지역 증언자 15인 합쳐서 32인의 증언이 실렸는데, 이는 항쟁 후 일부 언론 인터뷰를 제외하면 최초의 체계적인 증언 수집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오랫동안 4·19혁명을 시작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거쳐 6월민주항쟁에 이르는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증언 수집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사업회는 300여 건에 달하는 구술 증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힐 만한 수치다. 이들 증언 중 일부는 각종 도서로 출판되어 연구자는 물론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 1989년 출판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 2013년 발간한 부산민주항쟁증언집 『치열했던 기억의 말과 글』 부산편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은 구술 증언 수집의 봄이라고 부를 만하다. 후자는 기록의 역사에서 기억의 역사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거의 매달 구술 증언집이 쏟아지고 있으며 다루는 주제 역시 민주화운동을 넘어 현대사 연구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구술 증언 수집의 방법론이 전국의 연구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된 점, 각종 현대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구술 증언 수집을 통한 연구성과물 생산이 문헌 기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구술 증언

의 대량생산은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구술 증언의 중복 생산으로 인한 오류 증가, 생산된 증언 간의 교차 검증 부족 등이 그 예이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이뤄낼 것인가? 사업회가 과거 진행한 일반 시민 대상 구술 증언 수집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즉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사들 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 증언 수집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시민의 삶에서 누적된 민주주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핵심적인 수집 대상이 된다. 엘리트 중심이었던 민주화운동사 서술을 넘어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화과정을 역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중요하다.



▶ 4-19혁명 60주년 기념 4-19혁명 참여자(김용성) 구술 증언사진(2020년)

2021년 현재 사업회는 민주공원 부속건물인 사료관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료관이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역사를 보관한 공간이자 시민들의 기억 보존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기억을 수집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구술 증언 수집 대상자를 확대하고 증언 수집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도 자신의 기억이 역사를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기억 속에 저장된 한 장면, 대화 한 단락이 때로는 잊힌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밝혀진 진실은 다음 세대가 역사를 바라보는 등불이 될 것이다. 📌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故 김형률 16주기 추모식

올해는 한반도가 해방된 지 76년이 되는 해이자,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6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76년 전 투하된 원폭의 피해자 2세인 김형률 선생이 2006년 서른네 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지 16년이 되는 해다. 선천성 면역글로불린 결핍증으로 숨을 거둔 그는 2002년 스스로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하면서 국내에 '원폭 2세 환우'의 존재를 알렸다.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결성하여 한국인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김형률 선생의 모든 활동을 담은 많은 사료를 유가족이(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기증하여 민주공원에 보관하고 있다. 그는 일기에 병원 진료 내용, 자신의 병과 원폭과의 관계를 써 내려갔다. 그리고 반전, 반핵, 평화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의 생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환경, 인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징용, 징병 등으로 일본에 끌려갔거나 농토를 빼앗기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은 병고와 빈곤,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견뎌왔습니다. 그 고통의 나날들은 바로 2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원폭피해자 1세들과 달리 2세들은 자신들이 왜 아픈지, 왜 병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내려진 천형(天刑)인 양 개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故 김형률 환우는 이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자각한 선각자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환우들의 병이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불의한 전쟁의 산물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성과 핵전쟁의 위험성을 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핵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의 사과도 요구하였으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소중한 반핵평화인 권운동가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김형률 환우를 故 김형률 동지라고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 故 김형률 16주기 추모사 중 



민주공원 장송터 내 故 김형률 선생 추모비  
민주공원에 소장 중인 故 김형률 선생 관련 사료 일부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 2021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집구석 놀이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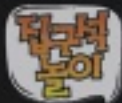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 2021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매년 어린이날이면 4천 명 가까운 시민이 민주공원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며 즐겼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를 연기한 후 9월에서 10월 사이 비대면 프로그램인 <2020 어린이 평화큰잔치 다 함께 배워요!>을 진행해 5천여 명이상이 참여했다. 올해 역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놀이터를 마련했다. '집구석 놀이'라는 주제로 펼친 <2021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의 생생한 후기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





천천히 세지 않게 불어주세요~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미술놀이



미술놀이 '공간을 채웁니다' 물들이다



# 민주공원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유반야 | 민주공원 공연기획담당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토요일은 감상데이!”

6월 26일부터 민주공원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토요일은 감상데이!”를 진행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가 주최하며 한국문화회관연합회, 민주공원, 부산연극제작소 동북이 공동주관합니다. “토요일은 감상데이!”는 연극체험 감상프로그램으로 연극이 무대화되기 전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고 홍보하는지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연극놀이와 인터뷰, 공연 포스터 만들기 등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차시에서는 직접 하우스 매니저가 되어 공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총 4기수로 열리는 “토요일은 감상데이!”는 6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집하며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은 민주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운영계획

차시	교육내용
1차	OT / 연극놀이, 감각 깨우기 / 특강
2차	연극놀이, 상상표현 / 공연 영상감상 / 공연 분석하기 및 인터뷰
3차	연극놀이, 관찰 / 공연 홍보물 만들기
4차	하우스 매니저란? / 홍보 공연 만들기
5차	하우스 매니저 되어보기 / 홍보 공연하기 / 공연 감상 / 해단식

※ 1, 3, 4기 - 9:30~12:30 / 매주 토요일 | 2기(방학) - 9:30~12:30 / 화-토요일  
(5회차는 공연 감상으로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연장상주단체 Dance Project EGERO



2019년과 2020년 민주공원 공연장상주단체로 활동한 Dance Project EGERO(이하 에게로)는 올해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민주공원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에게로는 도달하는 지점으로서 '에게'와 '로'가 결합된 우리말로 행위자 에게서 관객자에게로 느낌을 전달하고 극장과 거리 공연을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민주공원에서 4개의 공연을 무대에 진행합니다.

### ▶ 뒤죽박죽 동화 활극 <수구무지>, 7월 16일 ~ 7월 17일

동서양의 구전설화와 동화를 활용하여 그림작가, 판소리꾼, 전통연희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의 공연!

양반들을 조롱하던 마부 집안의 후손 딸뚝이 3세는 신분제도가 사라진 세상에서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된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 동안에 그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과거 조상들이 조롱하던 어리석은 양반처럼 변모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딸뚝이를 떠나게 된다. 그리하여 '비즈니스 관계만으로 사람들을 만나던 딸뚝이는 비서인 미스 박만을 동행한 채 크리스마스 연말의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열대 휴양지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데...

### ▶ 제3회 레퍼토리 심폐소생술 <Refresh>, 9월 3일 ~ 9월 5일

3일간 3개 도시의 9개 단체가 참여하는 작은 춤 축제로 지역 내 공연 예술 거점 및 지역 간 예술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제고하고, 부산과 타 지역의 우수레퍼토리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 ▶ 지역민을 위한 야외공연 <공원출판>, 9월 11일

민주공원 야외시설을 활용해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스트리트 댄스, 전통연희 등의 다양한 춤 레퍼토리를 방문객들에게 선보여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출판을 펼칩니다.

### ▶ 교류협력 상생 프로젝트 <비빔 - SEEDS>, 11월 12일 ~ 11월 13일

부산의 싱어송라이터 곡두와 함께 '씨앗'을 주제로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2015년, 모래와 파도가 만나고 헤어지는 지점에 시리아 난민인 세 살배기 쿠르디가 누워있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잠에 들어 있었다. 쿠르디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엇이 될지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피우지 못한 씨앗'인 소년을 통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래, 인간의 앞에 펼쳐진 다양한 가능성을 춤으로 피우고자 한다. 🌱

## 민주공원과 함께하는 6월 민주달력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수탁·부설기관의 소식과 회원 혜택 알림, 민주주의 관련 날짜를 안내하는 민주달력 6월 달력이 나왔습니다! 34주년을 맞이하는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우리가 6월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볼 수 있는 시민영상제가 열립니다. [2021민중미술-지구표류기] 색션 ① <민중미술가열전 VI 이인철> 전시도 문을 엽니다. 우수작품초청공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감상프로그램 '토요일은 감상데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열리니 관심 있게 봐주세요. 민주달력은 민주공원 SN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여 스마트폰으로 보시거나 출력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민주공원이 알려드리는 다양한 소식을 매월 달력으로 만나보세요!



##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 <더불어 흥성담 오월 판화 마당>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전시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가 3월 30일(화)부터 5월 23일(일)까지 민주공원 집은펼쳐보임방에서 열렸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광주와 한국을 넘어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적 기억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성명서, 선언문, 일기, 사진 자료, 공공기관이 작성한 관련 자료,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등 등재 기록물 9종 중 주요 기록물의 복제품(레플리카)을 전시했습니다.

더불어 1980년 5월의 현장을 판화로 제작한 흥성담 화백의 오월 판화 역장 중 35점을 전시했습니다. 작가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긴 기간 동안 때로는 숨어서 어렵게 제작한 50여 점의 오월 판화는 원판 제작연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흥성담 화백은 민주공원을 직접 찾아 판화를 일일이 살펴보고 작품의 명제와 생산연도를 확인하는 등 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 사료관 건립 및 운영 설명회



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 건립의 목적과 운영 계획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사료관 건립 및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사무소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부산겨레하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에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만나며 민주공원만의 부속건물이 아닌 부산과 우리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전체의 기록을 담아낼 수 있는 사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민주할매 평화할매 장승 만들기

민주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잔디 광장은 민주부산의 수도, 장승터입니다. 민족통일대장부'와 '민주평화여장부'가 나란히 서서 온갖 싹된 것들로부터 민주공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손재주 좋은 민주공원의 박병목(시설관리 담당) 직원이 만든 장승인데요, 요즘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3층 입구에 설치할 장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려진 나무를 가져와 대패질하고 스케치를 해 조금씩 깎으며 민주공원의 새 장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민주할매'와 '평화할매'로 지었습니다. 부산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민주공원에서 '민주 부산'을 지켜줄 민주할매와 평화할매를 잘 만들어 세우겠습니다.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할 장승을 기대해주세요.



## 4·19혁명 61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4·19혁명의 흔적,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4·19혁명을 생각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보존처와 협력하여 4·19혁명 기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앞으로의 기념을 고민하며 4·19혁명 당시 청년들을 찾아뵙고, 좌천동, 범내골, 서면 일대 등 시위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의 일이라 당시 시위 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4·19혁명 참가자들의 고통화로 인터뷰 약속을 잡고 진행하는 데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5월 중 다큐멘터리를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고자 했으나 때가 늦어져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 곳곳에 남아 있는

## 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 재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잠시 중단했던 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을 5월 11일(화)부터 재개했습니다. 공원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 및 민주항쟁기념관의 시설물과 조형물을 살펴보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민주공원 투어〉와 자연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걸어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민주랑 숲이랑〉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희망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민주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우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민주세상을 만듭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 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간 소식지 '민주공원'과 격주 화요일 뉴스레터를 정기 발송해드리며 알림 문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시는 분께 감사증서와 반려식물, 그림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민주공원 홈페이지([demopark.or.kr](http://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전화 가입 또는 관련 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전 화 : 051-790-7473

▶ 이메일 : [regisseur@demopark.or.kr](mailto:regisseur@demopark.or.kr)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부설기관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알림방에서 알려드리는 전시, 공연, 교육 등 행사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시 변경, 비대면 전환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는 즉시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행사 참여 전 운영 상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4대 민주항쟁과 촛불항쟁 관련 사료·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민주공원 부속 사료관 건립에 앞서 민주주의사회연구소는 4대 민주항쟁과 촛불항쟁 관련 사료와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가 보관 중인 사료와 기록물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시민 아카이브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사료를 기증해주신 분께는 기증확인서를 제공하고 민주공원 부속 사료관 기증의 벽에 기록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문의 [www.narak.kr](http://www.narak.kr) | ☎ 051) 463-2240

## 차별금지 특별강좌 PART.1 장애인 차별하지 맙시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의 인권강좌 3가지 주제 중 첫 번째로, '장애에 대하여 감수성을 높이는 강좌를 진행합니다. 정상인, 일반인, 특수학교 등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차별적 시선이 담긴 단어를 찾고 어떻게 바꿔 써야 하는지 예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은 어떤 지표를 띠고 있는지 직접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답변을 받아 파악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제를 추출하여 <2022 시민의제사전>에 실을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차별금지 사회를 꿈꾸는 분, 차별의 장벽을 없애고 싶은 분 등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 특별강좌 **PART.1 장애인 차별하지 맙시다**

- 진행일: 6월24일(목) - 7월15일(목) 총 4강  
 매주 목요일 | 저녁 19:00-21:00
- 신청방법: 1) 유선 신청 051)463-2240 2) 온라인 신청 [www.narak.kr](http://www.narak.kr) 공지사항-4강신청
- 신청장소: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부산시 동구 동명동 267, 403호)

#인권감수성 #차별금지 #차별없는사회 #장애성평등 #장애,권(力)이주

## 6월민주항쟁 34주년 기념 전시 [민중미술 2021 – 지구표류기]

- 일시 : 6월 10일(목) ~ 8월 29일(일), 오전 11시 ~ 오후 5시(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

### ① <민중미술가협회 VI 이인철>

- 일시 : 6월 10일(목) ~ 7월 25일(일)
- '민중미술가협회' 여섯 번째 기획으로 마련된 이인철 작가 특별전

### ② <민중미술의 현장 식민지구 2021 – #코로나그림>

- 일시 : 8월 7일(토) ~ 8월 29일(일)
- 환경미술의 새로운 담론과 흐름을 표현하는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



## 민주공원 숲속놀이터

- 일시 : 6월 10일(목)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youtube.com/민주공원)
- 온라인으로 만나는 민주공원, 민주공원 숲속놀이터! 부산의 젊은 국악 연주자들이 뭉친 날라리와 장이가 민주공원 곳곳에서 공연한 모습을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 우수작품초청기획공연 극단 더블스테이지 <밀다윈>

- 일시 : 6월 19일(토) ~ 20일(일)
- 장소 : 민주공원 작은방
- 전쟁이라는 창작축이 억압된 현실 속에서 밀다윈은 예술인들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정체성을 찾는 공간이었다. 예술인들이 꿀벌처럼 모여들어 실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얻어가는 곳, 밀다윈을 배경으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들의 복잡했던 내면세계와 그 시대 부산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 찾아가는 민주공원 <민주공원 이야기책>

- 얼마나 많은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판업북 <민주공원 이야기책>과 함께 어린이, 노인, 나무와 꽃, 고양이와 감이지까지 다양한 존재가 어우러지는 세상 만들기! 누워 있는 산을 세우고 다양한 캐릭터를 원하는 곳에 붙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나누고 있는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쓰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1일(월)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민주공원 이야기책>을 나뉘드릴 예정입니다. 해설 영상을 보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민주공원 이야기책>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 일시 : 6월 26일(토)
- 장소 : 민주공원 작은방
- 샌드아트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소수 인원만 모시고자 합니다. 예약 문의는 민주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식·시민영상제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오후 7시  
장소 민주공원 가리사리마당(앞마당)

# 민주주의 바람이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

## 주최

6월민주항쟁 34주년 부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부산연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연총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자학대학민주통일학생회

## 주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후원

부산광역시  
민주회운동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부산본부

